

288장 -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아멘

282장 -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 (1)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 께로 거저 갑니다
- (2)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 기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 (3)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 (4)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 (5)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 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 갑니다
- (6) 주 예수 베푸 사랑이 한 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 갑니다 아멘

3월 10일(토) 기도 담당 : 이윤익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고흥석 목사

예배를여는말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288장	..... 다같이
기도	.....	이형수 집사
성경봉독	..... 창 3:12~24	..... 인도자
찬양	.....	새벽찬양대
설교	..... 『타락 이후의 아픔』	..... 이상학 목사
기도	.....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 다같이
찬송	..... 282장	..... 다같이
축도	.....	설교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요일	본문	제목
3월 6일(화)	창 2:18~24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3월 7일(수)	창 3:1~7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3월 8일(목)	창 3:8~11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3월 9일(금)	창 3:12~24	타락 이후의 아픔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9일(금)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존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하루 첫 시간,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피조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우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로 향하는 가능성을 열어 주셨사오니, 주님 모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 교회의 머리되신 하나님!

주의 피 값으로 주고 사신 새문안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새 성전 시대를 앞두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새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수련회를 시작하는 청년 1부를 기억하여 주시어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생수의 강을 맛보고 체험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담임목사님을 붙들여주옵소서. 성령의 영감과 충만함을 주셔서 주가 주신 비전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영육을 붙들여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새문안교회를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가실 때 힘들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동행해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과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주 성령을 충만히 허락하시며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원근각처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땀 흘릴 성도들의 수고와 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화평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